

축협의 양돈계열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박 순 용
(축협중앙회)

UR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결정 되던지간에 점차 국제화와 수입 개방화 방향으로 변화 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경제 상황도 점차 개방 경제 체제가 정착되어질 것이고 국민소득 수준도 높아져 갈 것이다. 이에 따라 돈육의 소비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내외의 환경 변화는 돈육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증가도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가 호당 사육규모 확대와 사양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양돈업 전체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기함은 물론 양돈업 구조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돼지고기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사육할 토지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폭등 또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비 과다 지출 등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85년부터 축협에서 계열화를 실시하므로 수입 개방을 대비하며 양돈업의 구조 개선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효과를 얻어 국제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있고, 생산, 가공, 판매의 일괄적인 통합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돈육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화 체계는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양돈 농가를 보호 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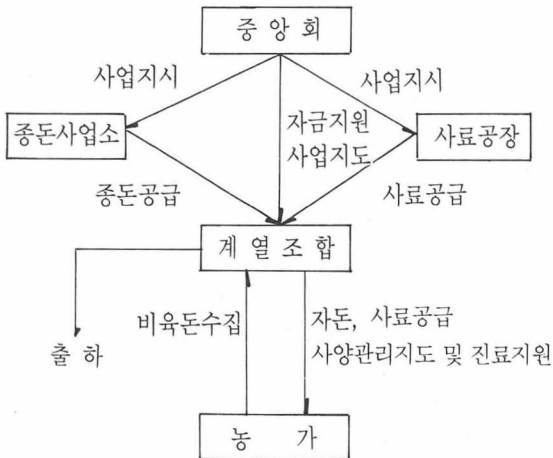
1. 추진 현황

축협의 사업 자체가 계열화 사업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계열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열화의 이름으로 실시 하였다. 계열화 사업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실시중에 발생될 오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추진 단계를 두어 1단계('85~'88)는 기반조성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기간으로 하였다.

2단계('89~'91)는 기반조성 기간중에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사업의 성과를 보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표1>과 같다.

<표1> 계열조합 년차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 연도	연도							계
	'85	'86	'87	'88	'89	'90	'91	
계열조합조성	3	3	3	4	8	13	(-)	34
자 금 지 원	6억원	6	6	8	16	26	(-)	68
계열농가조성	-	42	42	42	56	112	182	476
자 돈 공 급	-	6,300	12,600	18,900	27,300	44,100	71,400	-



〈그림1〉 사업추진 체계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업무분장 내용에 있어서는 중앙회는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 감독 등을 추진하며 특히 돈육 수급 전망 등을 잘 검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자돈, 사료 등 기자재 공급과 돼지사육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계열조합은 자돈(F₁) 사육, 3원교잡돈 생산, 계열 농가육성 및 자돈 위탁 사육과 비육돈 수집, 출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사업추진 체계는 〈그림1〉과 같다.

계열조합에 공급되는 중돈 두수는 조합당 160두(암 150두, 수 10두)이며 시설자금(300백만원)과 운영자금(100백만원)을 합하여 400백만원씩 자금이 융자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년리 4%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있다. 초기 2년간은 중앙회가 이자를 보조하되 운영자금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회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계열농가 선정은 돈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돈사 시설 규모는 20~25평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비육돈 5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돼지사육 경험이 있는 농가중에서 조합장이 적격이라고 인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돈과 비육돈 생산계획의 실적은 〈표2〉

와 같이 비육돈 출하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돈생산은 계획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2〉 자돈 생산 및 비육돈 출하실적

(단위: 두)

구분 년도	자돈생산두수			비육돈출하(두)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86	4,239	3,600	86%	1,180	1,213	103%
'87	9,771	10,296	106%	5,957	6,634	111%
'88	15,011	14,072	94%	10,427	11,570	111%
'89	18,613	15,830	85%	14,753	14,306	97%
'90	22,830	16,823	74%	16,300	14,686	90%

계열농가에 대한 소득현황은 〈표3〉과 같이 매년 증가되다가 '90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3〉 계열농가 소득현황

구분	농가(호)	수수료 지급총액	호당평균 지급액
'86	37	16,870천원	455,000원
'87	91	67,094	737,000
'88	118	80,292	791,673
'89	111	98,377	886,288
'90	122	65,741	538,860
계	357	262,633	735,670

2. 향후 추진 계획

가. 년차별 추진계획 수립

지금까지 추진중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역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년차별 투자계획

구분	'91	'92	'93	'94	'95	'96	계
계열조 합선정	개소 10	10	10	12	12	12	66
자금 투자	백만원 6,000	6,600	7,260	9,000	9,700	10,890	49,650
-용자	4,000	4,400	4,840	6,000	6,600	7,260	33,100
-자담	2,000	2,200	2,420	3,000	3,300	3,630	16,550

※기금투자는 년 10% 증가책정함

계열조합의 수는 판매량등을 감안하여 가감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계열화 체계로 조직 및 경영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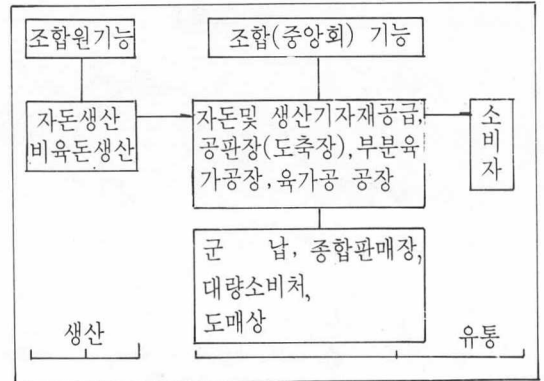
축협의 기존사업이 기능위주의 사업이며 주로 수평적 사업이었고 사업간에 연계성 결여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성숙되어지고 점차로 지역경제화됨에 따라 축산업도 그 규모면이나 경영내용등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축협 조직도 사업의 계열화로 전문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료공장, 중돈사업장등이 있으며 돈육을 판매하는 공판장등이 있으나 이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으므로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능 등을 통합 경영체제로 조직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2〉와 같다.

이러한 체제구축은 기존 5~6단계의 유통단계에서 2~3으로 축소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일괄적 관리체계 형성은 유통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부분적 통합형태를 완전 통합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축협은 공판장(도축장), 육가공공장, 부분육가공장, 수출전용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계약 사육된 돼지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계열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계열 주체와 사육농가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사육농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합(중앙회)과 충분한 협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



〈그림2〉 계열화 체계도

또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계열화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 결정하는 과정을 꼭 협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문제점인 사육규모의 영세성, 사육비 결정 내역과 방법,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협의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 안고있는 어려움과 중앙회의 임무중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은 함께 모여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축협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며 축협사업의 통합경영체제로 인한 민주 축협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계열화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중앙회가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계획과 추진내용 등을 꾸준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조합의 양돈장운영 합리화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 경영에 있어서는 관리직원의 빈번한 이동과 자돈생산비 상승 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합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그 외의 방법이 있다. 이중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자의 방법이 집중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전문 사양 조합원, 특히 번식용 사육전문 농가에서 생산하는 방안과 비육용 계약농가에서 자돈을 생산한 후 비육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 중앙회(조합)기능 강화

계열주체가 생산, 수집, 가공, 판매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집, 가공, 판매 기능이 너무 약하다. 계약사육된 돼지는 계열주체에서 전량 주체의 책임하에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돈육 소비 촉진

양돈업의 발전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 있다고 하여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돈육소비는 돼지고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널리 알리는 일이다. 영양적인 내용과 고기성분중에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홍보한다.

가공이란 부가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공급하는 일은 물론 소비자가 요구하는 즉석 식품과 같은 맛이나 간편성 등이 고려된 완전가공 제품이나 반가공 제품 등으로 공급을 촉진하는 일이다. 돈육을 이용한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생산,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들은 한국 국민 식성에 맞는 향신료나 조미료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식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같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여야 새로운 소비층을 개척할 수 있다.

2)수출의 적극적 추진

UR 협상이 체결되어 국제화 된다고 해도 돈육만은 일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학계나 업계에서 발표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일본

돈육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도 돈육의 대일 수출에 있어서 부진한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 즉, 규격돈 생산이 되지않아 고급부위의 생산이 규격품화되지 못하는 점과 일본국에서 냉장육을 원하는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부족과 육처리 기술의 미숙함을 들 수 있다.

물론 생돈가격이 높다는 부분도 크게 작용되지만 이 문제는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 냉장육 상태로 공급함으로써 상승된 가격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일수출의 잇점은 우리나라의 수요기때 일본은 비수요기인점 이외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안심, 등심 등이 고가 부위인 반면 앞다리 삼겹살 부위는 저가이다. 다행히 일본에서 낮은 가격 부위가 국내에서는 인기품목이며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대일 수출 전략이 국내 양돈업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이러한 면에서 축협은 김제 육가공 공장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대일 수출 작업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계열화 사업으로 사육된 모든 규격화된 돼지는 일본에 고가로 판매될 부위는 수출하고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될 부분은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하고, 나머지 부위는 가공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도록 계열주체가 육가공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3. 맺는말

양돈 계열화 사업은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나 축협 사업의 효율적인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정착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부분적인 계열화이지만 이를 실시하였던 경험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축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사업중에 계열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보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통합 형태가 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集